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2분기

Vol. 15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I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편람」 개정판 발간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7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안내(8~11월)

I 재정통계 동향

-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 2017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I 특집

-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수익 인식기준의 변화: 수행의무 개념의 도입

I 센터 동향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개최
- 센터 위탁연구과제 공모 및 계약추진 착수보고회
- 조세재정연-육군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육군 공동연구 추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해외 자문위원 재위촉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출장
- 2018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제2-4차 월례회의
-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1,2차 교육 실시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 NPO 간담회 및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 참석
-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I 세미나

-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I 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 라운드테이블 출장 후기

I 공지사항

-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 홈페이지 이용
-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2분기

Vol. 15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국가회계편람」 개정판 발간	2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3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5
① 2017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5
②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안내(8~11월)	8
03. 재정통계 동향	12
①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12
② 2017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13
04. 특집	27
①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27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수익 인식기준의 변화: 수행의무 개념의 도입	29
05. 센터 동향	36
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36
②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37
③ 센터 위탁연구과제 공모 및 계약추진 착수보고회	38
④ 조세재정연-육군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육군 공동연구 추진	39
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해외 자문위원 재위촉	40
⑥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출장	41
⑦ 2018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제2~4차 월례회의	42
⑧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1, 2차 교육 실시	45
⑨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46
⑩ NPO 간담회 및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 참석	47
⑪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48
⑫ 2018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49
06. 세미나	50
①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50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52
③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53
07. 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 라운드테이블 출장 후기	57
08. 공지사항	70
①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70
② 뉴스레터 이용	71
③ 홈페이지 이용	71
④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72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편람」 개정판 발간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7회계연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회계편람」 제3판을 발간하였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국가회계예규, 관련 실무해설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 처음 발간된 이래 국가회계기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번 제3판 개정에서는 국가회계기준과 현행 유효한 타 회계기준과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불필요한 차이점을 해소 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의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유·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외화평가 등이다.

국가회계편람은 2018년 8월부터 배포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회계편람 제3판의 주요 개정사항〉

주요 내용	관련 규칙 및 예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7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문단25, 39, 실무해설31, 적용사례16-18)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전부개정)
유·무형자산 인식기준 명확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6, 실무해설4-5, 적용사례1)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문단4, 실무해설2-3)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15 및 문단제정근거8)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가. IPSASB, 2018년 6월 정례회의 개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8년의 두 번째 정례회의를 2018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캐나다 토론토의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Technical Director의 업무계획 보고, 위원별 아웃리치 활동 결과보고 등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IPSASB가 현재 추진 중인 '금융상품: IPSAS 28-30 개정'과 '수익', '비교환비용', '사회보장급여', '공공부문의 측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IPSASB는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5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9종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프로젝트별 세부 안건과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세부 안건		주요 내용
금융상품: IPSAS 28-30 개정	5	Financial Instruments (Updates to IPSAS 2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금과 취득시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 간의 관계 등 6개의 기타 이슈에 대한 TF 논의 결과 IPSAS 41, '금융상품'의 승인
수익	8	Revenue-Approach to IFRS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테고리 C 수익거래의 POA 적용을 위해 인용한 IFRS 15 용어의 개정안 검토
	10	Revenue-Update of IPSAS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여금(Social Contributions) 회계처리와 관련된 IPSAS 23 개정문구 논의 수증용역(Services In-kind)의 자산 인식 의무화 관련 TF 조사결과 공유 및 논의
비교환비용	9	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카테고리 B)의 PSPOA 적용을 위한 단계별 이슈 및 적용사례 개발(안) 검토 수행의무가 있는 비교환비용 관련 현재의무 발생 시기 등 자원제공자의 회계처리 논의
	11	Non-exchange Exp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회계처리 규정의 개발 방향 논의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프로젝트	세부 안건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6	Social Benefits-Non-exchange Exp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64, '사회보장급여'의 응답 분석 (SMC1) 보편적 서비스(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s)의 적용범위 제외 (SMC2) 사회보장급여, 사회적 위험, 보편적 서비스의 용어의 정의(안)
	7	Social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64, '사회보장급여'의 응답 분석 (SMC3) 보험접근법의 선택 적용 등 (SMC4) 의무발생사건접근법에 따른 회계처리 (SMC5) 의무발생사건접근법 적용시 공시사항 (SMC6) 장기재정전망보고의 의무화 여부
공공부문의 측정	12	Public Sector Measu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측정기준의 Flow-Chart(안)에 대한 검토

IPSASB는 IPSASB 홈페이지(<http://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20>)를 통해 6월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별 세부 안건들과 안건별 논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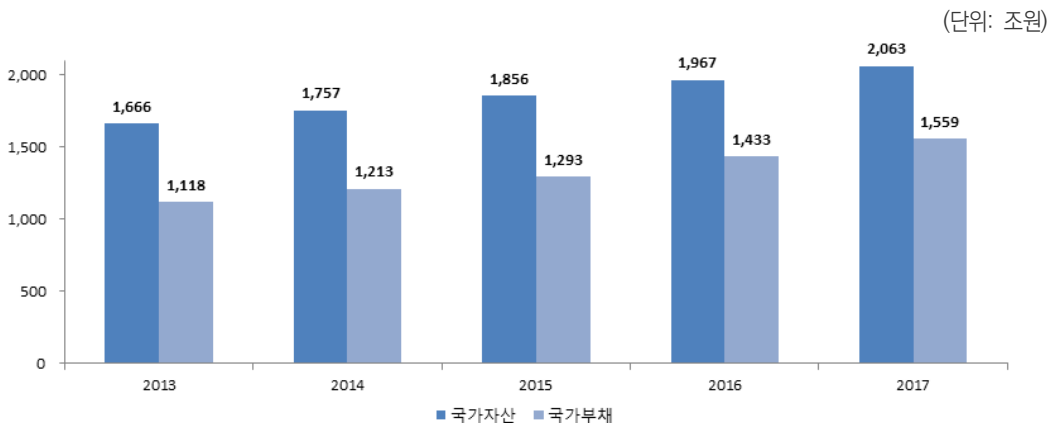
1 2017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에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18일에 기재부에 송부하였다.

2017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수정은 4.1조원(절대값 기준)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중앙관서 결산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에 따른 재무결산의 정확도 향상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5.7조원 증가한 2,062.5조원, 부채는 할인을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7조원 증가한 1,555.8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6.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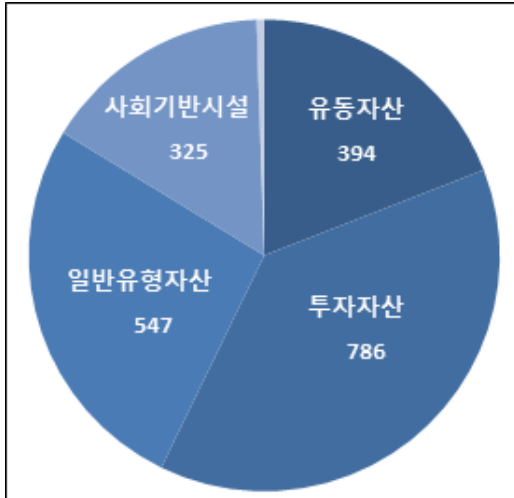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출처: 2013~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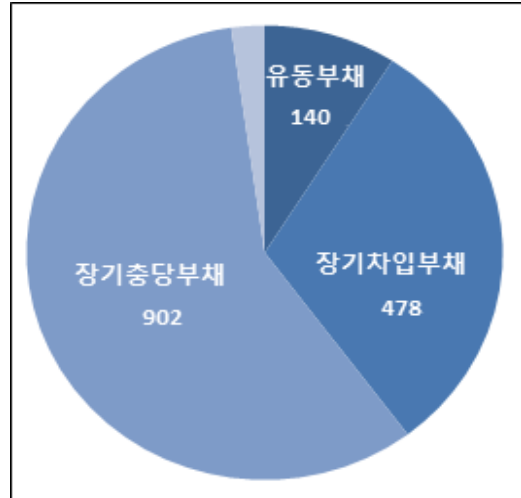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조원)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7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062.5조원으로 전년 대비 95.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27.0조원, 투자자산 59.2조원, 일반유형자산 35.0조원, 사회기반시설 6.0조원, 무형자산 0.3조원, 기타비유동자산 △0.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8.1%와 26.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1% 순이다.

2017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29.1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49.3조원, 단기금융상품 32.0조원 등 총 394.4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539.9조원, 장기대여금 138.8조원 등 총 786.4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39.7조원, 건물 64.0조원 등 총 546.7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1.4조원, 철도 38.6조원 등 총 324.6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4조원 등 총 1.6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3조원 등 총 8.8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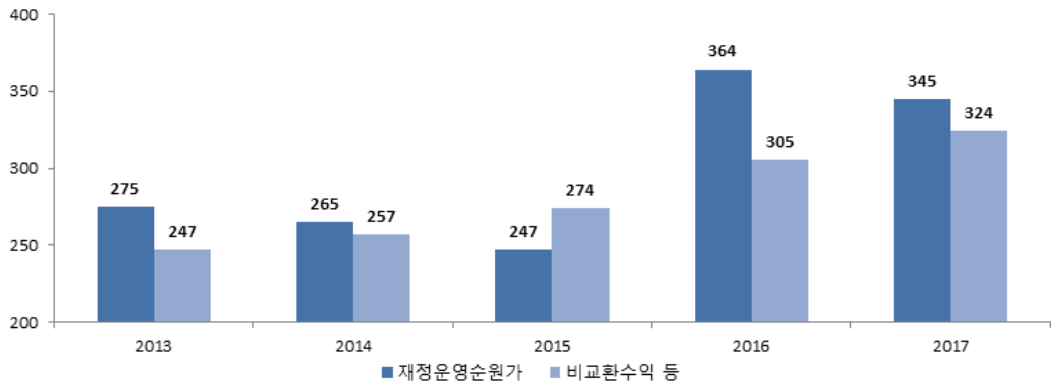
2017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5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충당부채 96.3조원, 장기차입부채 21.9조원, 유동부채 3.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8.0%, 장기차입부채는 30.7%, 유동부채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66.6조원,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54.4조원 등 총 140.2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63.8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1.1조원 등 총 478.4조원이다. 장기총당부채 902.2조원은 연금총당부채 845.8조원, 퇴직수당총당부채 47.9조원, 기타 8.5조원(보증총당부채 4.8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 유동부채 35.0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3.9조원, 장기미지급금 11.1조원이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자산재평가손실 감소로 전년 대비 18.3조원이 감소한 345.2조원이다. 국세수익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은 324.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1.1조원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안내(8~11월)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20일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전국 8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강릉, 세종)에서 순회 실시되고 있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기초이론부터 실무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각 과정별로 살펴보면,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원리 기초, 국가회계제도 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학습하며,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회계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국가재무제표 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학습함으로써 '18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 시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18년 6월~11월(총 12회)
교육 지역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제주·강릉·세종
대 상 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10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 실무 과정(2일간, 2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edu.kipf.re.kr)

이와 함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방문교육인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과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강사별 Q&A' 게시판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은 부처에서 국가회계 관련 교육을 요청하면 강사가 해당 부처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식이며, '강사별 Q&A'는 교육생이 국가회계 전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사후 교육서비스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방식과 사후 교육서비스를 통해 공무원 등 교육수요자가 국가회계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회계업무 역량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전문교육 8~11월까지의 교육과정(6~12차수)을 7월 2일부터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edu.kipf.re.kr>)에서 접수 중이다.

자세한 교육신청 방법은 8. 공지사항(p. 70)을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 커리큘럼〉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1.5	일반회계의 원리 재무제표의 구성 회계의 순환과정
		재무제표 만들기	1.0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만들기 재무상태표(발생주의) 만들기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	2.5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경과 및 효과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 현황 및 활용사례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특성 및 차이점 4. 국가회계의 주요 특징(자산, 부채, 원가) 5.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6. 국가재무정보 분석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이해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6.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기본사례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2일차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정,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 5. 원가의 재분류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 시산표와 재무제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 시산표 및 재무제표
국가 회계 실무	1일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2.5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7~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6차 교육) 2. 내부거래(7~10차 교육)
		업무유형별 사례 연습	1.0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연계 사례 연습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1.0	1. 재정운영표 2. 국가 자산 3. 국가 부채 4. 자산·부채 평가
		사례 연습	0.5	1. 기본적인 회계처리 실습
재무 결산 실무	1일차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2.5	1. 국가재무결산 개요 및 절차 - 예산편성 절차, 예산심의, 예산집행 - 결산의의, 결산심의절차, 결산일정 2.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 인식기준, 회계범위, 회계처리대상, 결산서류 3.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4.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디브레인 동영상 클럽 활용)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장부 메뉴구성 및 기능 수정전 시산표 마감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결산 오류발생 가능성 확인 및 조치 방법 - 감사원 지적사례
		결산조정분개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조정분개의 의의 결산조정분개의 유형과 결산조정분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회계처리, 관련 계정과목, 오류수정 및 조치
		[실습] 결산보고서 작성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결산조정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조정분개 유형별 회계처리 연습
	2일차	내부거래실무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거래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의 필요성 및 관련 기준 내부거래 제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절차, 대상자료 생성, 자동대사요건, 대상 제외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 메뉴, 오류발생시 처리, 업무담당자와의 협조
		결산보고서 작성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작성지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작성지침 목적, 활용방법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보고서 체계, 생성, 보고서생성내역조정 - 결산보고서 점검, 발행, 주석 작성 총잉여금, 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작성원리, 예시, 검토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세부설명
		[실습] 결산 대비 유의사항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개정사항, 조직개편 관련 사항, 재무결산 Q&A 실습

03 재정통계 동향

1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1)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는 2018년 5월 16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일반 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인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는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 및 PSDS(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각 기관에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최상대 국장의 소개 및 인사말로 시작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팀장의 재정통계의 개요 및 산출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유귀운 회계사의 재정통계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작성 관련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된 『2018 알기 쉬운 재정통계』와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를 설명회에서 추가 자료로 배포하였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5.16.),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2) 2017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재정통계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통계와 합산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로 산출되어 2018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국제기구인 IMF와 OECD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2 2017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공기업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7회계연도 결산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35개 기관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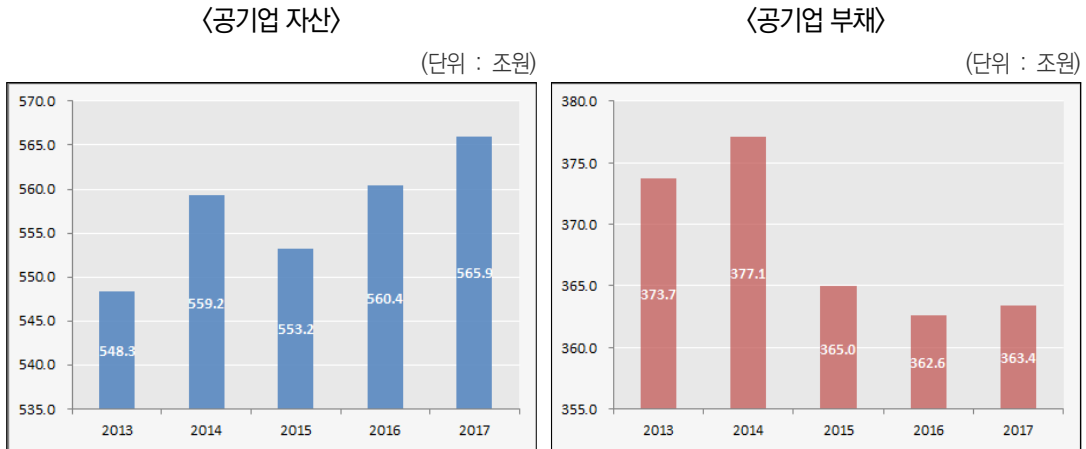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당 공기업에 대한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565.9조원, 부채는 363.4조원이고, 매출액은 142.9조원, 영업이익은 13.1조원, 당기순이익은 3.9조원이다.

1)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11개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보고는 생략함

가. 공기업 자산과 부채

공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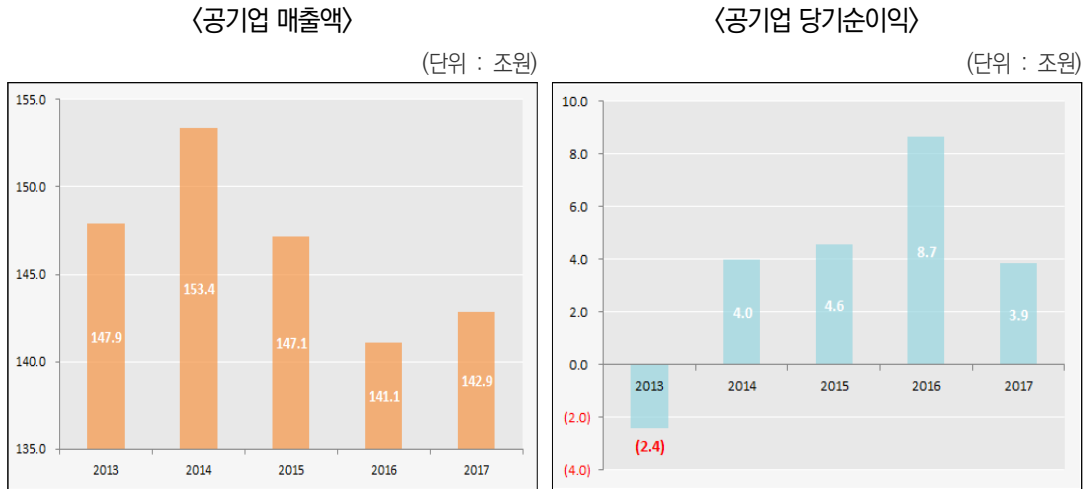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자산은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에 대한 자산손상차손 인식,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 저조로 인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매각, 한국석유공사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상차손 등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2014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7년의 경우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단기매입채무 및 유동충당부채 등 유동부채의 소폭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

나. 공기업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공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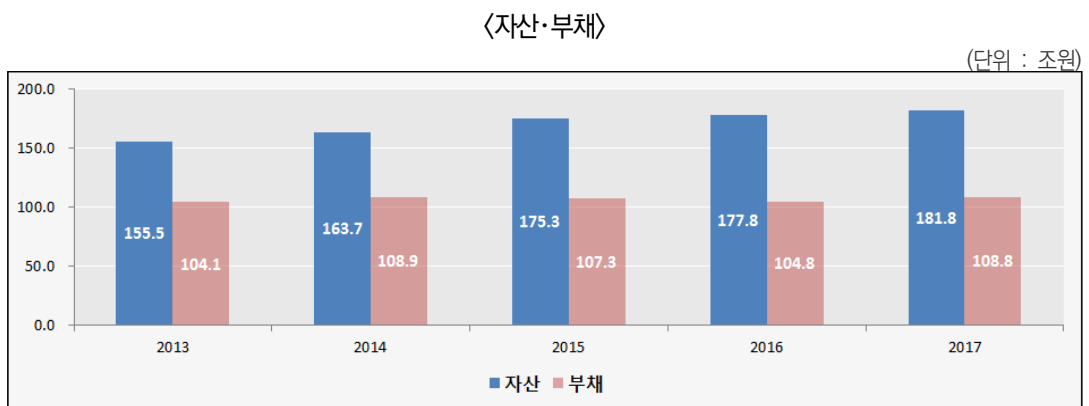
2017년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가스공사의 판매단가 상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토지 및 임대사업 매출액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조 7,452억원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6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증가추세였으나, 2017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단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조 7,743억원 감소한 3조 8,799억원을 달성하였다.

다. 주요 공기업 증감 분석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2017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2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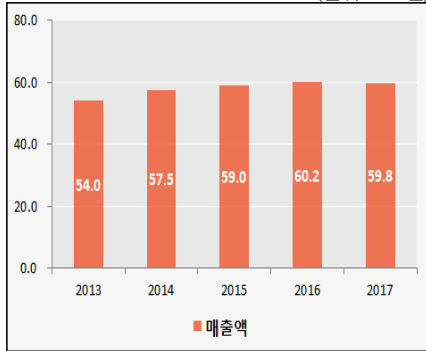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전력공사는 지속적인 전력설비투자로 인해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 발생한 본사부지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2015년과 2016년 일부 차입금 및 사채를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의 경우 전력설비 투자를 위한 사채 발행 증가 및 원전사후처리 총당 부채 증가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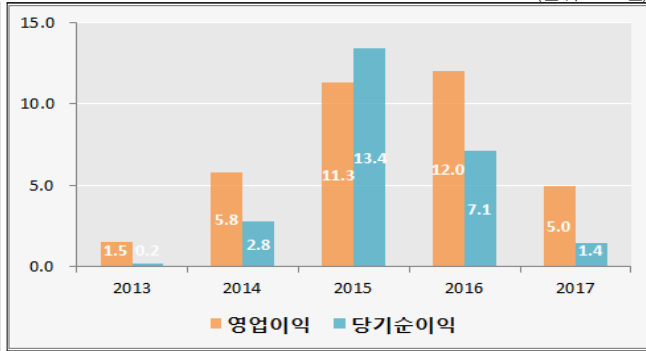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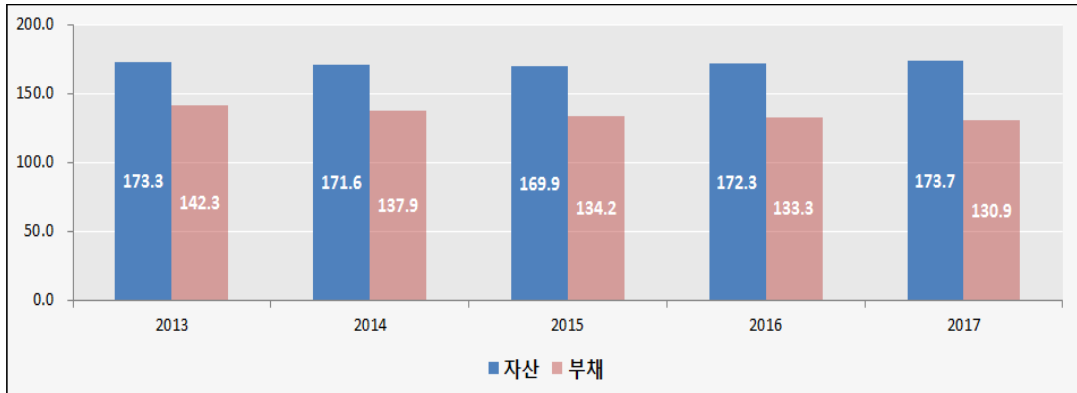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까지는 전기 판매량의 증가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원가율이 낮은 원자력발전 가동률 증가, 연료단가 및 구입전력단가 하락 등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해외사업수의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국제유가상승 등에 따라 연료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6.7조원)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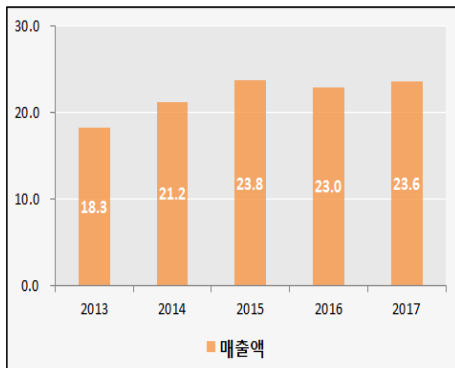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및 토지 분양, 임대주택 등에 따라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전세임대대여금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입금 감소로 인해 부채가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금융부채 상환으로 부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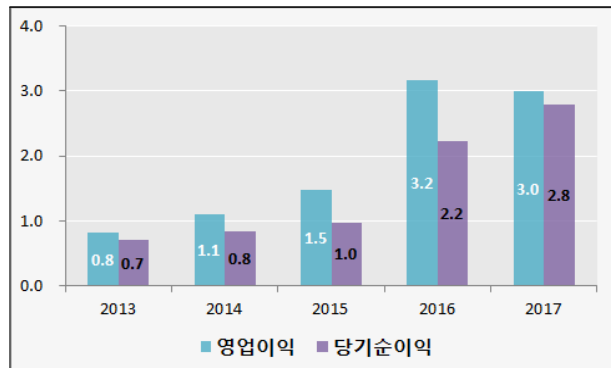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지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출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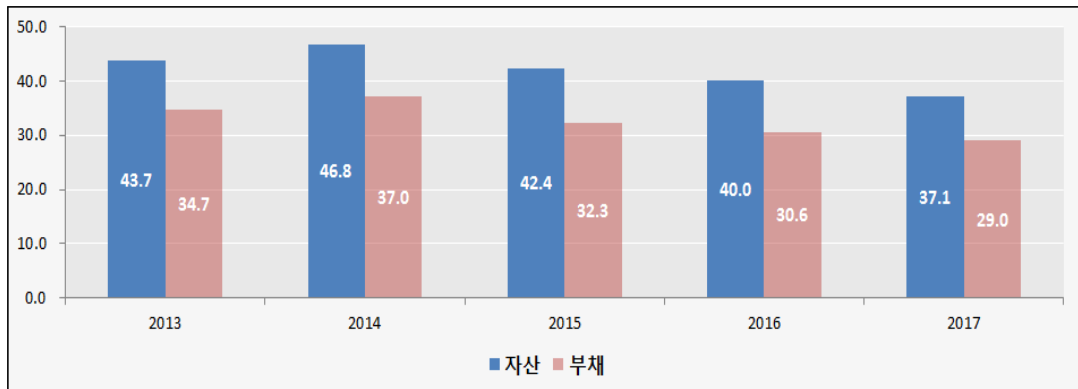
2017년에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본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을 받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공기업 총자산 중 6.6%, 총부채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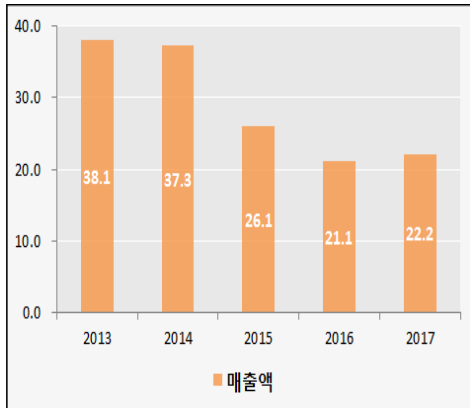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까지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및 국내설비투자 등으로 자산과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가스판매량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 LNG 단가 하락으로 재고자산 감소,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운영자금 규모 축소로 차입금이 감소하여 부채가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자산손상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환율하락으로 인한 차입금 감소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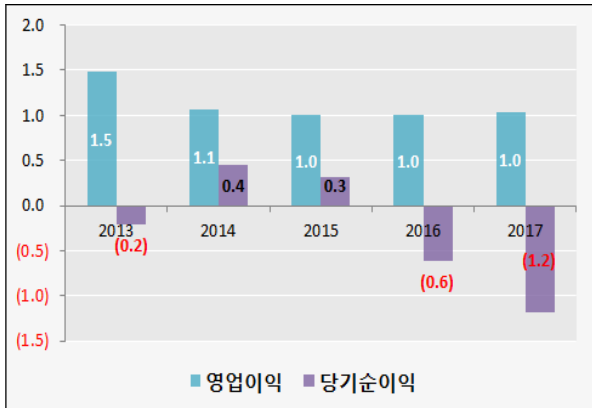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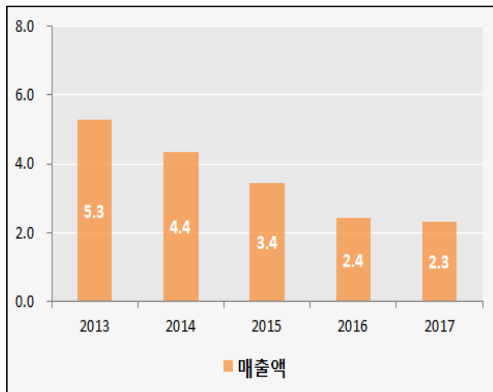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까지는 LNG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판매물량 감소 및 LNG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2017년의 경우 LNG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매입단가도 크게 감소하여 영업이익의 큰 변화는 없으나 2013년, 2016년, 2017년 해외자원개발자산 등의 손상차손 발생(2013년 : 6,036억원, 2016년 : 1조 49억원, 2017년 : 1조 7,30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4)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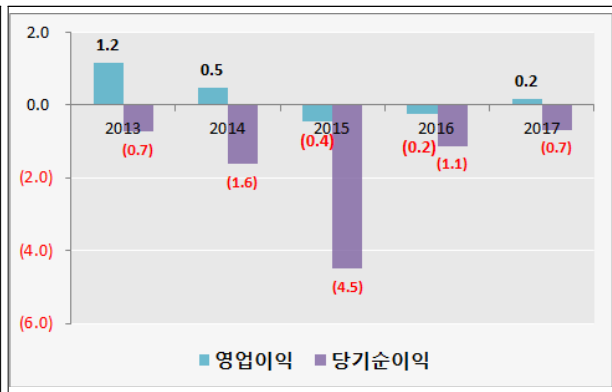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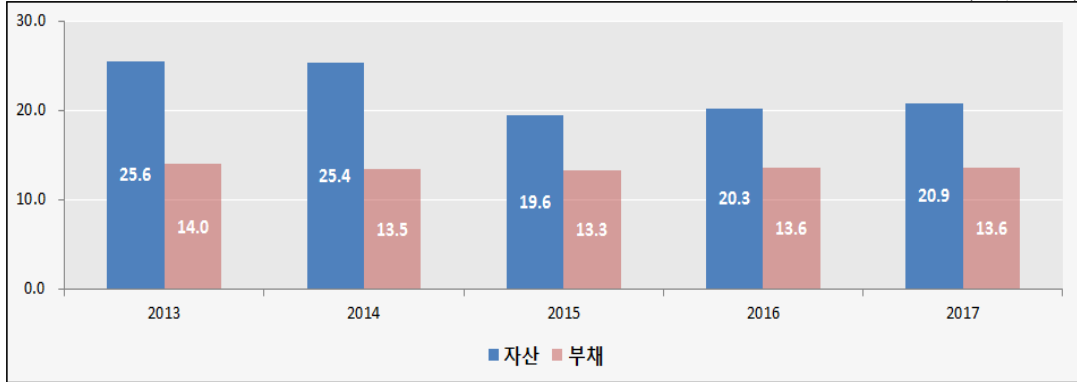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정제사업부문의 종속기업을 매각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유가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2014년 : 2조 586억원, 2015년 : 3조 1,92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개선되었다.

5) 한국수자원공사

〈자산·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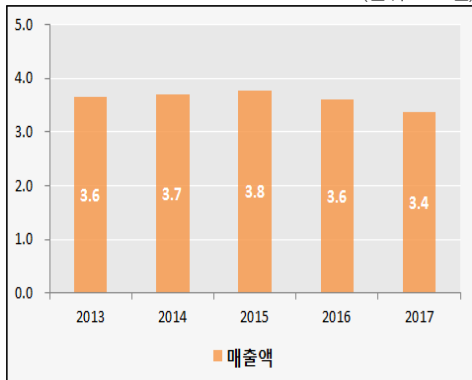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산·부채의 큰 변동은 없으나, 2015년 4대강 투자금 회수방안 확정으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손상(6.3조원)으로 인식하여 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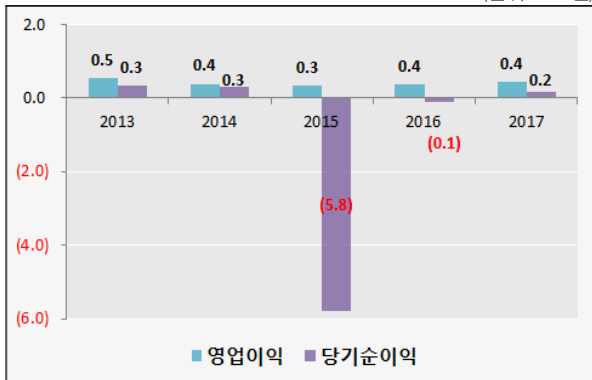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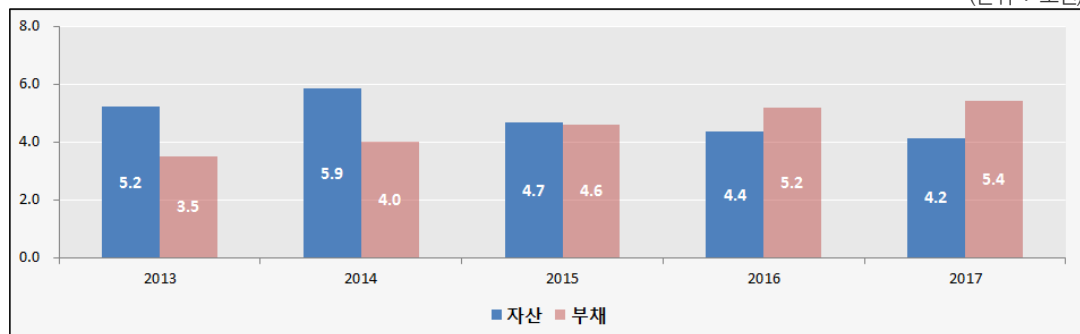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매출의 증가로 인해 2015년까지 매출액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분양매출의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4대강 무형자산손상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크게 기록하였다.

6)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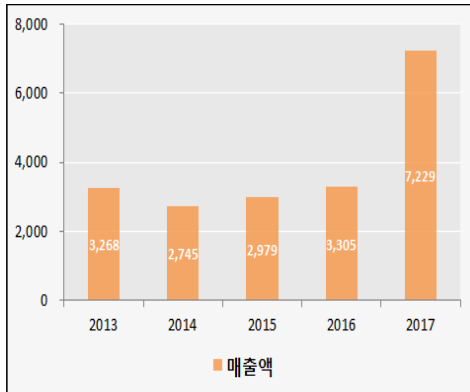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볼레오광산 투자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볼레오광산 손상 및 해외투자주식 손실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사채 및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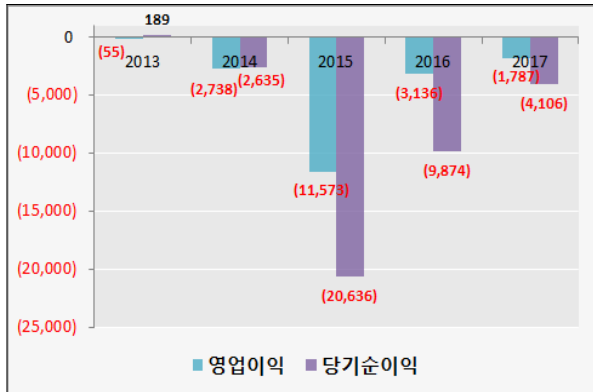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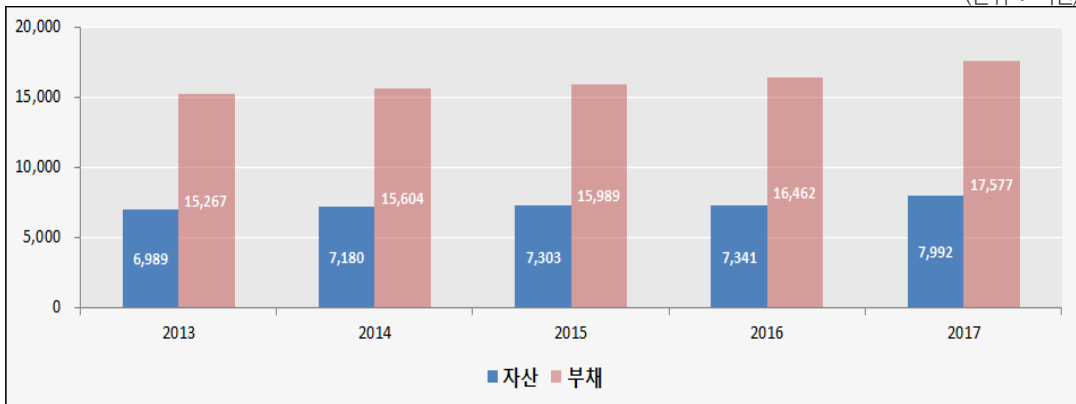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은 광산물판매, 지분투자회사의 지분법이익, 대부투자 이자수익 및 외환 거래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암바토비의 지분법 손실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장기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투자주식 평가손실 및 유·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볼레오 광산의 동생산 개시 및 본사 상품매출 증가로 인한 재화판매수익(1,455억원)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증가(1,631억원)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924억원 증가하였다.

7) 대한석탄공사

〈자산·부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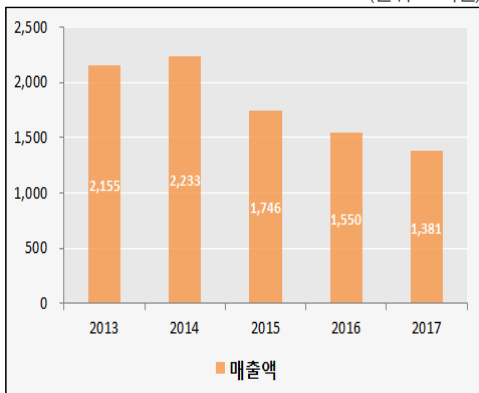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시설투자로 인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자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 자금 부족 및 지속적인 적자로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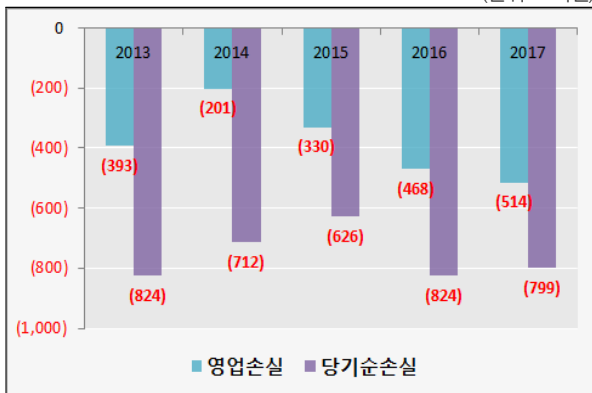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까지는 안정지원금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 동절기 이상고온으로 인해 무연탄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생산감축으로 인해 경제성을 상실하여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출액의 영향으로 2014년까지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2015년 이후 경영실적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소폭 개선되었다.

04

특집

1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정도진 교수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로 언론이 들끓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하여 전기 대비 122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과도하다며, 앞으로 공무원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 더욱 증가하는 정부 빚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된 부채뿐만 아니라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산해서 보여준다. 특히,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와는 많이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한 것으로, 퇴직률·사망률·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사용된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가정들의 변동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부채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분 93조원의 대부분인 82조원은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 3.97%에서 3.66%로 0.31%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퇴직급여부채는 할인율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연금충당부채를 국채와 차입금 등의 부채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IMF와 OECD 등의 공개 자료를 살펴보다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금액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재정분석과 경제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즉, 연금충당부채의 속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여 국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통합 관리하기보다는 연금충당부채를 일반 부채와 구분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으로 OECD 국가들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주는 해외채권자 비중은 10%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국가(포르투갈 55%, 스페인 43%, 이탈리아 33%) 대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금융자산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자산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을 OECD 국가별 자료(Net financial liabilities)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보고,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경제순환을 위한 국가 부채의 적정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국가부채를 일원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속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수익 인식기준의 변화: 수행의무 개념의 도입

임정혁 전문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2017년 8월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수익에 관한 현행의 기준서(IPSAS 9, 11, 23)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익 및 비교환비용’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한 바 있다. 자문보고서는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기준을 결정했던 기존의 체계를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IPSASB에서 논의 중인 수행의무 접근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논의 배경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현행의 수익 기준서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수익 및 비교환비용’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다. IPSAS 9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과 같은 현행의 수익 기준서들은 수익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아니면 비교환거래인지 여부에서 출발하여 적용해야 할 수익 인식기준을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가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의 정의¹⁾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자문보고서는 이 이슈와 관련, 공공부문 수익거래에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OA’)과 이를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IPSASB의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교환거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부채를 줄이는 대신 거의 동일한 가치(approximately equal value)를 직접적으로 제공(directly giving)하는 거래
- 비교환거래: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제공받는 거래(교환거래 이외의 거래)

나. 수행의무 접근법과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를 구별된 재화와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계약상 약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행의무 접근법(POA)은 이러한 수행의무의 이행 여부 즉, 고객이 이전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통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POA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 이상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보고서에서 제안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SPOA)은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POA)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보완한 방법이다. 공공부문의 수익거래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법적 계약이 아닌 약정 형태가 많아 강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제공될 재화·용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PSPOA 역시 5단계를 거쳐 수익을 인식하는데, POA와의 각 단계별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계	POA		PSPOA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계약을 전제하며, 계약에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이 명시될 때만 POA 적용 가능 • 계약별로 고객을 식별해야 함 	구속력 있는 약정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약적 약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력 있는 약정까지 PSPOA의 적용 확대 • 약정별로 고객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자원제공자가 제3자 거래의 고객에 해당함
2단계	수행의무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수행의무의 이행시점 판단을 위해 계약내 약속별로 재화·용역 구별 요구 • 구별된 재화·용역별로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개별 회계처리 	수행의무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묵적인 약속도 많아 용역 제공 약속을 구별할 때 용역의 성격·원가·가치·수량에 대한 폭넓은 고려 필요 • 약정상 제공 용역이 불명확한 경우 수행의무가 식별될 때까지 서비스묶음으로 회계처리
3단계	거래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의 계약은 상업적 실질을 바탕으로 함을 전제함 • 거래가격이 변동하거나 비현금 형태일 수 있으나 수행의무와의 관계는 명확함 	대기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POA는 대기금액과 수행의무의 이행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함 • 연관관계 유무는 수행의무 불이행 또는 초과이행시 대기금액의 조정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

단계	POA		PSPOA	
4단계	거래가격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가격을 재화·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행의무에 배분(파악 불가능한 경우 추정) 	대가금액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가금액을 수행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배분
5단계	수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의 이행 패턴에 따라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해당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수익 인식 	수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배분된 대가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제3자 거래의 경우 수행의무 이행 정도에 대한 자원수량자판단 능력이 중요함

나. 적용대상 거래

IPSASB는 공공부문에 POA와 PSPOA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수익거래를 A, B, C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카테고리 C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범주의 수익거래는 IFRS 15의 적용 대상인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와 동일하며, 공공부문 실체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카테고리 C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이므로 현행의 교환거래·비교환거래 접근법에 의할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반대로, 카테고리 A는 보통세를 징수하거나 특정 사용목적에 지정하지 않은 재원을 이전받는 경우처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거래며, 현행의 비교환거래의 성격을 뚜렷이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B는 이들의 중간 영역으로 수행의무는 있으나 IFRS 15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익거래들을 말한다. IPSASB는 이들에 대한 사례로 계약이 아닌 형태로 재원을 수취한 경우로, 해당 재원을 지정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카테고리 B는 경우에 따라 현행의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IPSASB는 3가지 범주의 수익거래에 대해 적합한 수익 인식방법을 검토한 결과, 카테고리 A에는 현행 IPSAS 23의 수익 인식방법을 개선한 방법이, 카테고리 B와 C에는 각각 PSPOA와 IFRS 15의 POA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기준	교환수익 거래		비교환수익 거래
구분	카테고리 C	카테고리 B	카테고리 A
정의	IFRS 15 적용 대상과 일치하는 수익거래	수행의무 또는 제약사항이 있으나 IFRS 15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익거래	수행의무나 제약사항이 없는 수익거래
사례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일반대중에게 특정 백신을 접종 시키기 위한 재원 수령	보통세 징수 특정한 사용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정부 간 이전
수익인식 방법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 (POA)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PSPOA)	IPSAS 23 개정안

각 카테고리별로 IPSASB가 제안한 방법들을 적용하면 수익거래에 수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방법을 달리하므로, 결과적으로 현행의 교환거래·비교환거래 접근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더이상 수취한 자원의 가치와 제공한 재화·용역의 가치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가치를 서로 직접 거래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IPSASB는 수익 프로젝트(Revenue project)를 통해 이러한 수익 인식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교환수익 관련 기준서(IPSAS 9, 11)를 POA 및 PSPOA를 다루는 신규 수익 기준서로 대체하고, 비교환수익 기준서인 IPSAS 23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 국가회계 적용 사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익의 원천에 따라 수익을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제28조제2항),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현행기준	교환수익	비교환수익
정의 (제28조제2항)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인식기준 (제29조)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현행기준	교환수익	비교환수익
세부 인식기준	(1) 재화판매수익: 일반적으로 재화 인도시점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으로 진행기준 적용 (3)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기간계약의 경우 수납 기간에 따라, 1회성 사용대가인 경우 수납 시점에 인식 (4) 이자수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5)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1) 신고·납부방식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2) 정부부과방식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 (3) 원천징수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4)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 가능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IPSASB가 개발 중인 PSPOA의 개념을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문의 수익 회계처리에 적용한다면 수익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우 현행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23에 따라 부담금을 고지하는 시점에 그 확정된 금액(고지금액)을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PSPOA를 적용할 경우 부담금을 수취후 사용 목적에 맞게 수행의무(재원을 사용해야 할 법적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²⁾하게 된다. 각 방법에 따른 부담금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현행기준	현행 수익 인식기준	PSPOA
수익 인식기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정도에 따라 인식
부담금수익의 인식기준	고지한 시점에 그 확정된 금액을 비교환수익으로 인식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 때 그 정도에 따라 인식
판단과정	(1)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가? → 아니오 → (2) 청구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 부담금의 고지 시점 → (3) 고지 시점에 고지한 금액 1,000원을 부담금수익으로 인식	(1) 고객과의 계약 또는 약정이 식별되는가? → 예 (관련법령에 따름) → (2) 수행의무가 식별되는가? → 예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함) → (3) 거래대가는 얼마인가?, (4) 수행의무별 거래대가는 얼마인가? → 부담금 징수 금액 1,000원 → (5) 수행의무가 이행되었는가? → 부담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한 시점에 사용 금액 500원을 부담금수익으로 인식

2) 부담금에 대한 수행의무가 근거법령에 따라 사용 목적을 한정된 법적의무만 있다고 가정한 결과임

현행기준	현행 수익 인식기준	PSPOA
회계처리 사례	〈부담금 고지 시(고지금액: 1,000원)〉 차) 미수채권 1,000 대) 부담금수익 1,000	〈부담금 고지 시(고지금액: 1,000원)〉 차) 미수채권 1,000 대) 선수수익 1,000
	〈부담금 징수 시〉 차) 현금 1,000 대) 미수채권 1,000	〈부담금 징수 시〉 차) 현금 1,000 대) 미수채권 1,000
	〈부담금 사용 시(50% 사용)〉 차) 비용 500 대) 현금 500	〈부담금 사용 시(50% 사용)〉 차) 비용 500 대) 현금 500 차) 선수수익 500 대) 부담금수익 500

현행의 부담금수익 회계처리는 법적으로 청구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징수할 부담금을 확정하여 고지할 때 정부에 해당 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금수익은 부담금 징수 거래의 가장 앞 단계인 고지 시점에 전액 인식되며,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인 징수 시점이나 사용 시점에는 수익 관련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PSPOA는 부담금 재원을 수취한 대가로 부담한 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이나 약정 등 재원을 수취한 실체를 구속할 수 있는 수행의무가 무엇이고 이 의무가 언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수익에 대한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PSPOA에 따른 경우 부담금 징수거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부담금의 사용 시점에서 부담금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라. 시사점

IPSASB가 IFRS 15의 POA를 PSPOA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거래는 명시적인 계약이나 약정 없이 암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제공할 재화나 용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인위적으로 식별해야 할 때가 많다. 게다가 특히 PSPOA는 공공부문 실체와 국민(고객) 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아 양자 간에 강제성 있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관점이다.

그러나, POA 또는 PSPOA는 국가회계실체에게 주어진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상의 수익 정보와 연계될 수 있어 실체의 회계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회계실체가 재원을 수취한 대가로 부담하는 수행의무를 해당 실체가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로

간주한다면 재무정보와 성과정보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SPOA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IPSASB는 2018년 6월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 POA와 PSPOA를 담기 위해 IFRS 15의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한 공공부문의 사례를 5가지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IPSASB의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국가회계에 PSPO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05

센터 동향

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 첫 소위원회가 4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본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는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전문위원 7인,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참여하여 다음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를 중심으로 재무결산 개요 및 추진경과, 국가재무제표 주요내용 및 감사원 결산검사 등을 보고하였으며, 감사원 결산검사에 대하여 부처별 추진 방안, 연금충당부채 등 국가부채를 왜곡 없이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연중 지속적인 소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회계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4.27.),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

2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23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6월 15일 서울지방조달청 아태재정협력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회계센터 내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의 주재로 민간전문위원 6인이 참여하여 'IPSAS 리스 공개초안 의견 수렴'과 '연금충당부채 인식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논의된 안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IPSAS 리스 공개초안 의견 수렴' 안건에 관하여 자문위원들은 IPSASB의 사용권모형에 따라 기초자산과 사용권자산을 별개의 경제적 현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IFRS, IPSASB, GFS가 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다음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등 개선방안' 안건에 관하여는 연금충당부채의 할인율 산정방식에 대해 '보고기간 말 할인율'과 '자체연금할인율' 사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러 대안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자문위원회 동의결과를 IPSAS 리스 공개초안을 위한 의견 개진과 연금충당부채 인식 개선 방안 검토 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6.15.) 서울지방조달청 아태재정협력센터 소회의실〉

3 센터 위탁연구과제 공모 및 계약추진 착수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4월 국가회계분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연구 과제를 학회공모로 진행하였고, 4월 25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정재무제표의 유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추정재무제표의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과제(과제명: 예산에 기초한 추정재무제표 마련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자: 홍익대 조형태 교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센터와 연구진은 5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자는 추정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내외 추정재무제표의 사례분석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예시 및 예측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의 전반적 개요를 설명하였다. 센터는 국가회계는 민간과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므로 민간사례는 제외하고 해외와 공공부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였고, 연구자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위탁과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현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과제의 바탕이 되는 자료조사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며 실질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후 7월 중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에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시스템을 살펴보면 결산부문의 발생주의 회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예산부문의 발생주의 도입은 미진한 상태이다. 이 과제는 발생주의 예산의 첫 단계인 추정재무제표의 타당성과 예시를 통한 실질적 작성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우리나라 예·결산 제도의 효율성과 개선에 관한 검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예시 및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국가회계 분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4 조세재정연-육군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육군 공동연구 추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한민국 육군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과 국방재정업무의 발전 및 투명한 국방경영을 목적으로 2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4월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육군 예산차장실 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육군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협업과제는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에 위한 재무정보 개발'로 선정하였으며, 육군 측에서 관심 분야로 선정한 '상용차량 버스의 획득 및 장비유지 예산 획득에 필요한 재무정보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육군 예산차장실이 현황 및 내용 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에서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현황 분석에 기초한 재무정보를 개발하는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육군의 주된 관심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재무정보를 발굴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육군뿐만 아니라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인 타 국가회계실체까지 국가회계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활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해외 자문위원 재위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5월 31일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외자문위원 Delphine Moretti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재위촉하였다.

Delphine Moretti는 OECD 예산공공지출과 선임정책분석관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재위촉 후 임기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이고,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연구 또는 지침에 대한 실무해석 시 국제공공부문 회계 이슈와 해외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에 대한 분야를 자문하게 된다.

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해외 국가회계자문위원은 Anderas Bergmann(IMF 정부재정통계 자문위원회 위원),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제부문회장),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가 선임되어 활동 중에 있다.

6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출장

IPSASB는 2018년 6월 19일(화)부터 6월 22일(금)까지 4일간에 걸쳐 토론토의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IPSASB 멤버 등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정례회의로 금융상품, 사회보장급여, 수익, 비교환비용 및 공공부문측정 등을 안건으로 각각 이슈 논의, 응답 검토 및 개정 승인 등을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IPSASB 위원인 정도진 소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각 안건별 기준서 담당자인 임정혁·진태호 전문연구원이 회의 참관을 위하여 옵저버 자격으로 함께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정례회의에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제·개정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정례회의 결과 및 논의사항은 향후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세부 일정 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19 (화)	개회사 등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EPSAS 업데이트, IASB 업무계획의 요약 등	09:00 - 10:40
	금융상품	IPSAS 승인	11:00 - 12:30
	사회보장급여, 비교환비용	응답 검토(적용범위·용어 정의)	13:30 - 15:10
	사회보장급여	응답 검토	15:30 - 17:00
6/20 (수)	사회보장급여(계속)	응답 검토(계속)	09:00 - 12:30
	수익 및 비교환비용	이슈 논의	13:30 - 17:00
6/21 (목)	수익 및 비교환비용(계속)	이슈 논의(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09:00 - 10:40
	수익	이슈 논의(IPSAS 23 개정)	11:00 - 11:40
	비교환비용	이슈 논의(집합적 서비스)	11:40 - 12:30
	공공부문 측정	이슈 논의	13:30 - 17:00
6/22 (금)	금융상품(계속)	IPSAS 승인(계속)	09:00 - 10:00
	공공부문 측정(계속)	이슈 논의(계속)	10:00 - 12:30
	업무계획 보고 및 폐회사	라운드테이블 결과 등 보고	13:30 - 16:00



7 2018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제2~4차 월례회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분기에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제2~4차의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로 소속되어 총 3차례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의 연구진은 강태혁 교수(한경대),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박성환 교수(한밭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아영 교수(강원대), 배득중 교수(연세대), 임동완 교수(단국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4차 월례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 제2~4차 월례회의〉

	제2차 월례회의	제3차 월례회의	제4차 월례회의	
일시	4월 12일(목)	5월 11일(금)	6월 8일(금)	
장소	서울 지방조달청	서울 지방조달청	서울 코리아나호텔	
주제	SOC 분야의 세출예산의 성과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국가하천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성과평가의 활용: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제도를 활용한 재정성과관리의 제도화	
발표자	박성환 교수	이아영 교수	임동완 교수	
참석자	연구진	강태혁·김이배·남혜정·배득중·임동완 교수	강태혁·김이배·남혜정 교수	강태혁·김이배·박성환·남혜정·이아영·배득중 교수
	외부토론자	김상노 이사(성신회계법인), 김성일 선임연구위원(국도연구원)	채수준 교수(강원대), 금재덕 교수(서울시립대)	오영민 교수(동국대), 전성만 정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소장(재정성과평가센터), 강희우 팀장(국가계약TFT)	윤성주 소장(재정지출분석센터), 원종학 소장(재정성과평가센터), 박한준 팀장(평가제도팀)	권남호 부연구위원(재정성과평가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우원재 연구원	정도진 소장, 우원재 연구원	정도진 소장, 우원재 연구원

제2차 월례회의는 4월 12일,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박성환 교수가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박성환 교수는 SOC 분야의 세출예산의 성과지향적 분류체계를 주제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 하천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성환 교수는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핵심사업 예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러한 분류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dBrain에 기록되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내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성과관리체계가 국가하천정비와 관련된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예산분류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월례회의는 5월 11일,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이아영 교수가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아영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성과평가의 활용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병원을 대상으로 고유사업의 성과관리체계(2017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 사업의 성과관리체계(2016년 경찰청 성과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부성과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경찰병원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궁극적으로 일반 정부 부처 성과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4차 월례회의는 6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동완 교수가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임동완 교수는 재정제도를 활용한 재정성과관리의 제도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연계 방안, 둘째, 프로그램 예산제도(프로그램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 방안, 셋째,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프로그램 결산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간 연계를 달성하여 성과관리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분기에 2차례 월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관리 및 재정통계 분과'의 월례회의(7.12., 8.17.)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종보고회(9.14.~9.15.)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출판할 계획이다.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제4차 월례회의(6.8.), 서울 코리아나 호텔〉

8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1, 2차 교육 실시



〈국가회계 전문교육(제2차), 대구 컨벤션센터(6.27.~6.2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도 제1, 2차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서울무역전시장(6.20~22), 대구 컨벤션센터(6.27~29)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국가회계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번 교육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서는 성신회계법인 김상노 회계사(2차, 진회계법인 이재혁 회계사)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를,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이 국가회계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2일차에서는 이정회계법인 허웅 회계사가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종합사례 연습을 통해 설명하여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제2차 대구 교육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와 국가회계’라는 주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여 수강생들이 IPSAS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가회계실무과정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오가영 회계사가 수입·지출 업무의 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최금주 회계사(제2차, 현지용 회계사)는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국가재무제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제1차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제12차 세종지역 교육까지 6개월(6월~10월)에 걸쳐 8개 도시(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강릉, 세종)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상단 「교육안내」 메뉴의 「공지사항」 참조)

9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실무지침서의 마련을 위해 센터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회계 전문가 및 학계 교수,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는 4월 26일, 6월 14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구분회계, 현물기부의 공정가치 측정, 기부금 수익인식시점, 회비수익, 정부보조금, 모금비용 인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지난 3월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월 23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회의실에서 중간보고를 실시하였다. 중간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수탁과제는 7월 하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과제 종료 후 2018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고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자문회의(4.26.),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10 NPO 간담회 및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 참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5월 3일 한국NPO공동회의가 개최한 「NPO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하여 발표 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국세청 공시양식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NPO 간담회(5.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5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양식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였다. 발표에 이어 정도진 소장(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손원익 박사(전 안진회계법인), 변영선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서은경 팀장(굿네이버스), 경은정 팀장(아산나눔재단)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6.15.),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NPO 간담회」와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및 토론자 의견 등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11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개발적립금과제(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 착수보고회를 6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하였다. 착수보고회는 정재호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도진 소장의 연구과제 소개에 이어 외부 심의위원인 권혁대 교수(목원대), 전중렬 교수(서울과기대), 정재욱 교수(대전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 보고회는 외부 심의위원의 토론에 이어 공공기관연구센터 하세정 박사의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는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참여 연구진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과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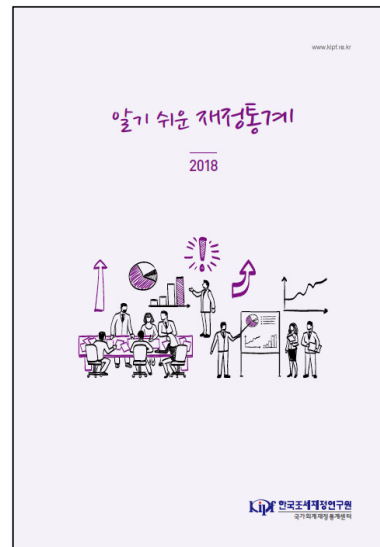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착수보고회(6.4.), 서울지방조달청〉

12 2018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6 알기 쉬운 GFS」 개정판인 「2018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Q&A를 수록하여 혼돈하기 쉬운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편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GFSM 2014 도입이 미칠 주요 변화 및 2016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하여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통계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06 세미나

1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주최한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가. 개요

1. 일시: '18.4.20(금) 13:30~15:00
2. 장소: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층 교육장
3.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발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나. 발표 요약

□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 덕성여대)

'18년 4월 2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이배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 덕성여대)는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02년 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설명하고, 북한의 정부회계 범주에 속하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의 체계와 특징 및 회계처리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된 발표 내용〉

- 북한 정부회계의 체계에 관한 고찰
- 북한 지방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중앙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부문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권선국 교수(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남주 국가회계팀장(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회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남주] '02년 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부회계를 비교해 볼 때 그 목적, 범위, 회계의 독립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은 당 또는 중앙정부가 최하위 경제활동 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까지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정부회계가 국회,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공회계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고 이를 평가받는 데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의 정부회계에는 중앙회계와 지방회계, 그리고 민간의 기업소에 해당하는 부문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리성 여부에 따라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구분하는 남한의 정부회계의 범주와 차이점이 있다.

셋째, 북한의 자금관리는 당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영 연합기업소 또는 시·도·군의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계가 지방회계의 자금을 수납 받아 관리함에 따라 회계실체 간 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남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나 1960년대 말 확립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 법령의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북한실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회계학 연구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2018년 5월 4일, 서울 조달청 중회의실에서 IPSAS 포럼을 개최하였다. 학계, 지방회계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센터에서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소개, 수익회계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소개라는 세 가지의 소주제로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맡았고, 참석자들은 IPSASB의 소개를 제외한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수익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전중열 교수는 IFRS 15의 수행의무 개념은 계약서에 명시되는 구체적인 약속의 개념인데 국가와 국민 간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에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약속의 개념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종운 교수는 영미법을 바탕으로 하는 IPSAS와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므로 채권·채무 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회계논리인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수 교수는 수행의무의 개념이 모호해서 수행의무로 인한 부채의 관리가 어려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행의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회계통계센터의 박정규 팀장은 보조금의 경우 외부와의 구체적인 약속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수행의무 개념 적용이 적절하고, 자본보조금 등 지자체의 보조금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데 수행의무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정도진 소장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문제로 공시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논의 이전에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한중수 교수는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설명은 보다 상세한 주석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중열 교수는 사회보장급여 부채 인식 시 차기 급여 및 생존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IFRS 개념(종업원급여)과 괴리가 있는 회계처리이므로 IPSAS의 제정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이번 IPSAS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IPSAS 의견개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IPSAS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IPSAS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IPSAS 포럼(5.4.), 서울 조달청 중회의실〉

3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가. 개요

1. 일시: '18.5.19(토) 14:40~16:10
2. 장소: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대 B2F 강의실
3. 참석자: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임정혁(국가회계팀), 김선재(국가회계팀),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정아름(감사연구원), 김이매(덕성여대)
4. 발표: (주제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
(주제 2)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
(주제 3)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첫 번째 주제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는 IPSAS의 도입취지와 함께 IPSAS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재무보고 기준의 국제적 정합추세가 강화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발맞춰서 IPSAS 도입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IPSASB에서 공개초안(ED), 자문보고서(CP) 등 회계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임정혁, 국가회계팀 전문연구원)

두 번째 주제인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은 IPSAS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수행의무 개념을 이용한 국가회계기준 수익 회계처리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익의 회계 처리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SPOA)에 따라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을 분류하여 인식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국가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개선가능성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목적세 및 부담금 등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CP에 제시된 범위보다 포괄적임

[임정혁]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회계의 현행 수익 계정과목체계를 바탕으로 구분한 사례이므로, 추후 수익유형별로 수행의무 유무 및 대표적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아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의 사례로 든 목적세는 전체 조세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통해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원가 대비 효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정아름] 수행의무의 식별 기준, 범위 및 통합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수준 중 어느 수준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통합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임정혁]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성과보고서상 단위사업 수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정도진] 수행의무 접근법을 도입하면 수행의무별 순원가 정보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 재무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지방재정분권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현 정부는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중앙 대 지방의 세입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변경을 추진

[정도진] 수행의무접근법을 통한 수익 인식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이 가속화에 따른 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유용할 수 있음

[전중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지방정부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전중열] Category A, B, C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수행의무 접근법 적용의 계량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수행의무 적용시 재정운영표 서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할 필요

□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김선재, 국가회계팀 회계사)

세 번째 주제인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는 IPSASB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설명하고 사회보장급여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접근법과 의무발생사전접근법의 측정기준을 살펴본 후,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공개초안 63의 경우 쟁점이 되는 의무발생사전 접근법과 보험접근법은 회계처리 관점에서 각각의 접근법에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전중열] 의무발생사전 접근법의 경우 수혜자가 차기급여분 만큼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전중열]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검토에 기초한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해 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아지므로 국가회계에서 이를 수용가능할지 의문

[전중열] 의무발생사건 접근법과 보험접근법 적용시 우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채 규모를 산정할 필요 있음

[정아름]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제도나 법,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아름] 기준의 일관성 및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게 기술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나라별 일정부분 자율성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음

[정아름] '정의'를 수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 고려

07

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 라운드테이블 출장 후기

이번 출장의 목적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Strategy and Work Plan 2019-2023)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에서 주최하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부문 회계전문가가 가져야 할 지식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가.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18.5.28. ~ 2018.5.31.
- 출장지: ADB 본사 마닐라, 필리핀
- 출장자: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김선재 특수전문직 3급, 임종권 특수전문직 4급

〈세부 일정〉

일자	주제	내용	시간
5/29	행사 소개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전략 개발과 자문 절차의 개요 • 라운드테이블 행사의 안건 • 참석자 소개: IPSASB 위원들과 스텝 	9:30 - 9:50
	2019-2023 전략: 목적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목적과 5가지 전략 소개 • 제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 논의 	9:50 - 10:45
	Coffee Break		10:45 - 11:10
	과업계획: 기준제정 우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선택 기준 • A 주제 - 공공부문의 특정이슈에 대한 기준제정 • B 주제 - IFRS와 정합성 유지 	11:10 - 13:00
	네트워킹 점심		13:00 - 14:00

일자	주제	내용	시간
	과업계획: IPSAS 도입과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인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 주제 - IPSAS 도입 및 시행을 위한 홍보 • E 주제 - 공공재무관리를 강화시키는 발생주의의 유용성 지지 	14:00 - 15:10
	Coffee Break		15:10 - 15:30
	장기재무적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주제 - 재무제표 작성자의 재무보고 시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지침 개발 • RPG 1 - 회계실체 재정의 장기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 • 기타 C 주제와 관련한 잠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15:30 - 16:15
	요약 및 폐회		16:15 - 16:30
5/30	행사 소개 및 개요		8:30 - 9:00
	Session 1: 발생주의 IPSAS 도입의 장점 및 도전과제		9:00 - 10:00
	Coffee Break		10:00 - 10:15
	Session 2: 패널논의	• 각국별 발생주의 IPSAS 도입 경험 공유	10:15 - 11:45
	Session 3: 최근 IPSASB 활동에 대한 소개		11:45 - 12:30
	네트워킹 점심		12:30 - 13:30
	Session 4: IPSAS 주요 이슈	• 고정자산, 연결F/S, 연금부채 등	13:30 - 14:30
	Session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IPSAS가 외부감사와 정부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	14:30 - 15:30
	Coffee Break		15:30 - 15:45
	Session 6: IPSAS 관련 MOSAIC(회계강화 및 협동제고를 위한 MoU) 패널 세션		15:45 - 17:30
요약 및 폐회		17:30 - 17:45	

나. 주요내용 요약

□ 2018년 IPSAS 전략 라운드테이블(Part 1)

현재 IPSAS 주제 중 85%가 공공부문특정이슈를 다루고 있고, 15%가 IFRS와의 정합성유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상태이며, 2019~2023년에는 IPSAS 공공부문특정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IPSASB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5가지 주제(Theme)를 업무 계획으로 결정하였다.

◆ 업무계획 선정시 고려하는 4가지 요소

1. Prevalence	재무보고이슈가 공공부문 회계실체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
2. Consequences	해당 이슈로 인해 재무제표의 책임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는지 여부
3. Urgency	신규 쟁점의 중요도가 최근 부각되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야 하는지 여부
4. Technical and Resource Considerations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적당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

1) Theme A: 공공부문 특정 기준 제정

공공부문특정이슈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 이슈들은 아래와 같다.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공공부문에서 흔히 당면하는 이슈로서, 정부가 천연자원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천연자원의 인식과 측정이 자원의 관리와 발생하는 효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할인율(Discount Rates)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을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차등보고(Differential Reporting) :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실체를 위한 간결한 IPSAS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IPSAS 도입의 비용을 줄이고 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발생했다.

- 개념체계의 제한된 검토(Conceptual Framework limited-scope review) : IASB 개념체계가 수정됨에 따라, IASB의 개념체계를 일부 준용한 IPSAS의 개념체제도 수정해야 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2) Theme B: IFRS와 정합성 유지

공공과 민간의 기준이 다를 경우 연결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IFRS와 유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IPSASB는, 새로운 IFRS가 발표됨에 따라 금융상품(IFRS 9), 수익(IFRS 15), 리스(IFRS 16)에 대한 IFRS와의 정합성유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향후에도 IFRS와의 정합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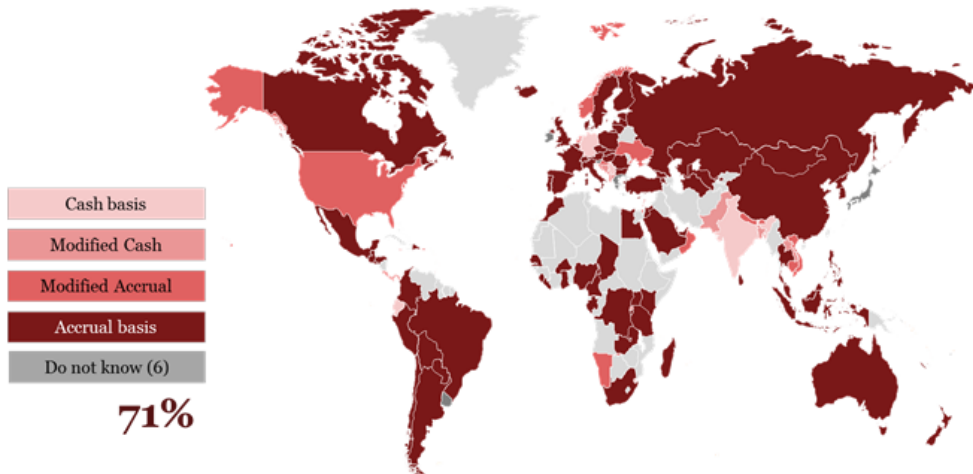
3) Theme C: 이용자의 폭넓은 재무보고를 위한 지침 개발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1(장기재정전망보고)은 2013년에 승인된 지침으로 사회보장급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PSASB는 ED 63(사회보장급여 공개초안)을 통해 RPG 1을 필수보고서로 만들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 그리고 향후 응답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동 프로젝트가 2019-2023 업무계획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주요 공공부문 재무성과지표가 개발 중에 있고, 공공부문 회계실체가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성과측정을 위해 원가회계 지침 개발을 고려 중에 있다.

4) Theme D: IPSAS 도입과 이행 장려

2020년에는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주의 도입국가가 전체의 71%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1] 향후 발생주의 도입 예상국



출처: PwC Global Survey on Accounting and Reporting by Central Government(2nd edition)

이에 IPSAS 도입과 이행 장려를 위해 IPSASB 위원들과 Staff 등은 각자의 지역적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IPSAS는 'At a Glance', webinar, Q&A, Study 14¹⁾ 등을 통해 IPSAS 도입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IPSAS 도입국가에 대한 정보를 8월 초까지 지도 형태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IPSAS 확산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림 2] IPSAS 도입과 이행 장려에 관한 발표



1) 발생주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IPSASB가 2010년에 처음 발간하였고, 국가들이 발생주의로의 전환 시 흔히 당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담을 담고 있음

5) Theme E: 공공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발생주의의 장점 홍보

IPSAS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IPSAS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도구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홍보의 대상으로 주요 국제 기구(IMF, OECD, WB) 및 기타 잠재적 정보 활용자들(자본시장, 신용평가기관, INTOSAI 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학계로 하여금 발생주의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 2018년 역량강화포럼 (Part 2)

1) 발생주의 IPSAS 도입의 장점 및 도전과제

(발표자)

- Mr. Ross Campbell, Director for Public Sector, ICAEW
- Mr. Michael Herty, Former CFO of Welsh Government

발생주의 IPSAS 도입의 장점으로는 자원의 사용 및 현금과 비현금 지출을 포괄적으로 기록함에 따라 정부서비스의 총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금주의에서 IPSAS 또는 IFRS와 같은 발생주의로의 전환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력²⁾과 함께 다음 요소들이 조화가 이루어도록 해야 한다.

- ① People & Resources: 적절한 자원에 의해 뒷받침 되는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알맞은 인재와 최적의 기술, 지식, 접근법이 필요함
- ② Standards & Policies: 추가로 생성될 계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 기준제정과정, 도입될 정책을 포함함
- ③ Systems and Processes: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최적의 사회기반시설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④ Strategy: 위험요소를 관리하며, Staff과 이해관계자들이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함

2) 현금주의에서 완전발생주의로 전환하는 데에는 최소한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리고, 수정발생주의의 경우 완전발생주의로 전환될 때까지 평균 2~4년이 걸림

- ⑤ Project Delivery: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감독 하에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함
- ⑥ Structure & Ownership: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정치적 리더십 구조가 필요함

2) 패널논의 - 각국별 발생주의 IPSAS 도입 경험 공유

(발표자)

- Mr. Ian Carruthers, IPSASB Chair(좌장)
- Mr. Mike Blake, Deputy Chair of the IPSASB and member of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Austria
- Mr. Luzvi Pangan Chatto, Director IV, Commission on Audit, Philippines
- Mr. Rasmimi Ramli, Assistant Director and Head of Financial Reporting & Assurance, 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 Malaysia
- Mr. Luis Carcel Viana, Technical Manager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Unit, Ministry of Finance of Portugal

(1) 호주/뉴질랜드

IPSAS 도입 관련 Challenges	IPSAS 도입 관련 Opportunit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주의 전문 회계사들의 사직 2. 발생주의 보고, 하지만 현금주의 관리 3. 기말 현금 이전 4. GAAP과의 GAP(격차) 파악 5. 정부 회계실체의 범위, 상호교류, 필요한 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 6.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일관된 회계정책이 필요 7. 변동이 심한 잉여금(또는 결손금) 8. IPSAS가 기본이 되는 기준 선택(뉴질랜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 스텝의 재배치, 유동성 있는 회계사들 2. 발생주의 보고(뉴질랜드) 3. 모든 종업원 급여의 파악 및 기록 4. 적시성 있는 발생주의 정보 (호주-매분기/뉴질랜드-매월) 6. 회계연도 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발표 7. 도시와 의회를 포함한 지역 간의 비교 8. 장기재정전망보고 9.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요소를 알리기 위해 재무상태표 사용(뉴질랜드) 10. 정부의 재무성과 이해가 가능

(2) 필리핀

필리핀은 현재까지 31개의 IPSAS를 도입하였고, 공기업은 IFRS를 도입 중이며, 정부회계기준 발표와 함께 정부의 재무 상태와 운영을 포함한 연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인 Commission on Audit(COA)을 운영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재무관리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이하 “PFMR”)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선을 하고 있으며, 정부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PSAS, IFRS 등)과의 정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력들이 시간과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IPSAS를 완전하게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며, 한국의 dBrain과 같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3) 말레이시아

Malaysia Institute of Accountants(MIA)는 말레이시아에 IPSAS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국장(Accountant-General)인 Datuk Wan Selmah를 IPSASB 의원으로 지명하였고, 기술적 지원을 하였으며, 공공부문회계위원회(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 설립 및 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mmittee)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완전한 IPSAS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회계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리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태이다.

(4) 포르투갈

포르투갈 정부는 1997년에 1차로 IPSAS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고, 2013~2015년에 IPSAS 기반의 개념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다시 IPSAS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IPSAS를 기준으로 하는 25개의 재무회계기준, 예산회계기준, 관리회계기준을 제정하였고, 규모가 작은 회계실체(small and micro entities)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기준(차등보고)을 적용 중이다. 또한 웹포털(Web Portal)을 통해 공공부문회계실체와 기준제정자 간의 지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수정될 필요가 있는 회계제도와 교육을 파악 중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회계 및 감사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준제정자, 포르투갈 중앙은행, 통계청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매월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발생주의로의 전환과 이행을 감독(monitors)하고 있다.

3) 최근 IPSASB 활동에 대한 소개

(발표자)

- Mr. Ian Carruthers, IPSASB Chair
- Mr. Ross Smith, IPSASB Deputy Director

(1)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사회보장급여의 인식 및 측정 등과 관련된 공개초안이 2018년 5월 31일에 발표되었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기준서는 2018년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2) 수익 및 비교환비용(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수익 및 비교환비용에 관한 자문보고서가 2018년 1월15일에 완료되어 발표하였고, 기존에는 수익을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였지만 공공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펀딩(funding)하여 수행한 프로젝트들처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중간지대 성격의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3) 공공부문의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공공부문의 측정 공개초안에서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자세하고 특수한 방식의 측정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타 IPSAS기준(유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지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유산(Heritage)

자문보고서는 2017년 9월 30일에 발표되었지만, 개념체계의 개발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5)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IFRS 9(금융상품)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자산 및 부채에 관한 새로운 분류 및 측정방법이 발표되었고,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이 예상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IPSAS ED 62(금융상품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렴하였으며, 기준서는 2018년 6월 정례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6) 리스(Leases)

리스 공개초안이 2017년 12월에 발표되었고, 동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 측면에서 IFRS 16의 '사용권 모형(right-of-use model)'이 공공부문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리스제공자 측면에서 '위험-보상 모형(risk and rewards model)'의 적용이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제공자는 IFRS 16이 아닌 IPSAS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을 인식하고, 리스채권과 리스부채는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4) IPSAS 주요 이슈

(발표자)

- Mr. Williard Kalulu, Chief Accountant, Ministry of Finance, Tanzania
- Mr. Luis Carcel Viana, Technical Manager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Unit, Ministry of Finance of Portugal

(1) 탄자니아

2016년 자료기준으로 탄자니아 정부는 614개의 실체(controlled entiti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3년에 통합재무제표(Consolidated Government-Wide Accounts, "CGWA")가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내부거래제거 작업시스템 구축은 2015년부터 진행되어 2016년에 완료되었다. 탄자니아는 IPSAS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특히 인력부문에서는 전문성 있는 회계사를 양성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며, 관리체계 및 관리기관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탄자니아는 로드맵을 정한 후, 표준절차 확립을 통해 해당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2)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Unit에 속해있는 정부기관 UNILEO은 예산 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예산, 경제와 금융 정보를 중앙 회계 시스템 및 공공 회계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SNC-AP)을 개시 및 적용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UNILEO은 회계실체(entity)별로 고유활동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통합 범위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ILEO는 예산기본법에서 통합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통합 범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SNC-AP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고유활동에 따른 통합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IPSAS가 외부감사와 정부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Mr. Vincent Tophoff, Partner, INTE-Q Integration Management
- Mr. Binsar Simanjuntak, Former Chairperson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Indonesia

(1) IPSAS와 GRC 간의 관계

Good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GRC)운영이란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목표들 간의 복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표준화할 수 있는 IPSAS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IPSAS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는 GRC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IPSAS 도입을 통해 더욱 발전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GRC 운영과 IPSAS 도입 확산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정부회계기준(IGAS)을 2004년에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자산, 부채에만 발생주의가 적용되었고 수익, 비용에는 현금주의가 적용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모두 발생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은 발생주의 정보를 기초로 중앙정부 내부통제에 관한 시행, 평가, 검토 보고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OFR”)를 마련하였고 이는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재무현황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무 보고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6) IPSAS 관련 MOSAIC(회계강화 및 협동제고를 위한 MoU) 패널 세션

(참가자) AfDB, ADB, DFAT, FORMIN, GAVI Alliance, Global Fund, IDB, IFAC, NZAID, SIDA, WB, UKAID, USAID

MOSAIC(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Strengthen Accountancy and Improve Collaboration)는 2011년에 13개의 파트너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 재무보고 강화를 위한 회계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MOSAIC(회계강화 및 협동제고를 위한 MoU) 패널 세션에서는 정확성이 높은 공공재무정보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IFAC와 CIPFA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 공공부문 재무책임성 지수(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와 같이 공공재무보고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 향후계획

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의회계기준 도입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역량강화포럼을 통해 공공부문 전문가가 가져야 할 지식을 배양하였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전세계적인 IPSAS 도입 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한 공공 부문 회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식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하여 IPSASB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2018년 IPSASB의 전략 및 과업계획 라운드 테이블(5.28. ~ 5.31.), 필리핀〉

08 공지사항

1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팀 주요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 연구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B) 제·개정 동향 파악 및 국내외 회계 기준 비교 분석 해외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발생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결산교육팀 주요 업무	
국가재무결산 지원	국가회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이슈 대응 • 국가재무제표 작성 지원 • 감사원 및 국회 대응 지원 • 재무결산 중간점검 지원, 결산작성지침 작성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 국가회계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재무결산담당자 워크숍 개최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운영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재정통계 산출	공공기관 결산지원	공익법인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GFS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 통계 산출 • PSDS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 통계 산출 • 주요국 재정통계 동향 분석 • 재정통계 작성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통합결산서 작성 • 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 결산 관련 질의회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개정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2 뉴스레터 이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 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신청 안내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는 8~11월까지의 교육과정(6~12차)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분은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edu.kipf.re.kr>)에 접속하여 수강 희망 일정과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동일과정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건을 먼저 취소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나의 학습 조회'에서는 교육신청조회, 신청취소, 신청정보변경, 수료증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 관련문의 : 결산교육팀 전승진 행정원(044-414-2375)

〈교육 일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교육일정	기간	인원	장소	비고
3차	광주	국가회계이론	7. 4.(수)~7. 5.(목)	2일	100	김대중컨벤션센터	교육종료
		국가회계실무	7. 6.(금)	1일	100		
4차	부산	국가회계이론	7. 10.(화)~7. 11.(수)	2일	100	부산컨벤션센터	
		국가회계실무	7. 12.(목)	1일	100		
5차	대전	국가회계이론	7. 18.(수)~7. 19.(목)	2일	100	대전컨벤션센터	국유물품
		국가회계실무	7. 20.(금)	1일	100		
6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8. 22.(수)~8. 23.(목)	2일	100	서울무역전시장	국유물품
		국가회계실무	8. 24.(금)	1일	100		
7차	제주	국가회계이론	8. 29.(수)~8. 30.(목)	2일	8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국가회계실무	8. 31.(금)	1일	80		

차수	지역	교육과정	교육일정	기간	인원	장소	비고
8차	강릉	국가회계이론	9. 5.(수)~9. 6.(목)	2일	100	강릉녹색도시컨벤션센터	
		국가회계실무	9. 7.(금)	1일	100		
9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9. 12.(수)~9. 13.(목)	2일	100	서울무역전시장	
		국가회계실무	9. 14.(금)	1일	100		
10차	세종	국가회계이론	10. 10.(수)~10. 11.(목)	2일	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가회계실무	10. 12.(금)	1일	100		
11차	세종	재무결산실무	11. 8.(목)~11. 9.(금)	2일	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2차	서울	재무결산실무	11. 15.(목)~11. 16.(금)	2일	100	서울무역전시장	

<홈페이지 교육신청 방법>

① 「국가회계교육 포털」 접속 ⇨ 로그인 (처음 이용자는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회원가입 정보 입력)

③ 교육 신청(상단메뉴 또는 화면중앙 '신청하기' 클릭)

④ 교육 신청 일정 확인

교육신청안내

1. 동일 과정을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 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나의 학습>에서 기존 신청건을 취소한 후,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후 시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육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수료는 교육과정 전일, 전시간 이수 시에만 인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입력한 정보로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되며,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입력정보가 정확하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차수	지역	교육일정	시간	강의장	신청하기	신청 / 정원
1	서울	2018-06-20 (수) ~ 2018-06-21 (목)	09:30 ~ 17:30	서울무역전시동(SETEC) : 컨벤션동 컨벤션홀1	신청하기	0/100
2	대구	2018-06-27 (수) ~ 2018-06-28 (목)	09:30 ~ 17:30	대구컨벤션센터(EXCO) : 본관 306A	신청하기	0/100

⑤ 신청정보 입력 (기본값 - 회원 가입 정보)

국가회계이론 과정

신청자정보

- 성명: 진승연
- 기관명: 한국회계재정연구원
- 부서명: 결산교육팀
- 직급: 행정차
- 연락처(유선): 044 - 414 - 2375
- 연락처(C/P): 010 - 7942 - 1753
- 이메일: e180@

취소 신청

⑥ 교육신청취소 또는 정보변경(나의학습조회)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교육안내 교육신청 학습자료실 교육 Q&A **나의 학습조회**

나의 학습 관리

나의 학습 관리 > 나의 학습 관리

교육 신청 현황

No.	과정 명	회차	교육일정	장소	신청일자	정보수정	학습여부
1	국가회계이론 과정	1	2018-06-20 ~ 2018-06-21	서울	2018-05-18	정보수정	신청취소

■ **편 집**

정도진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이남주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국회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우원재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국회회계팀(뉴스레터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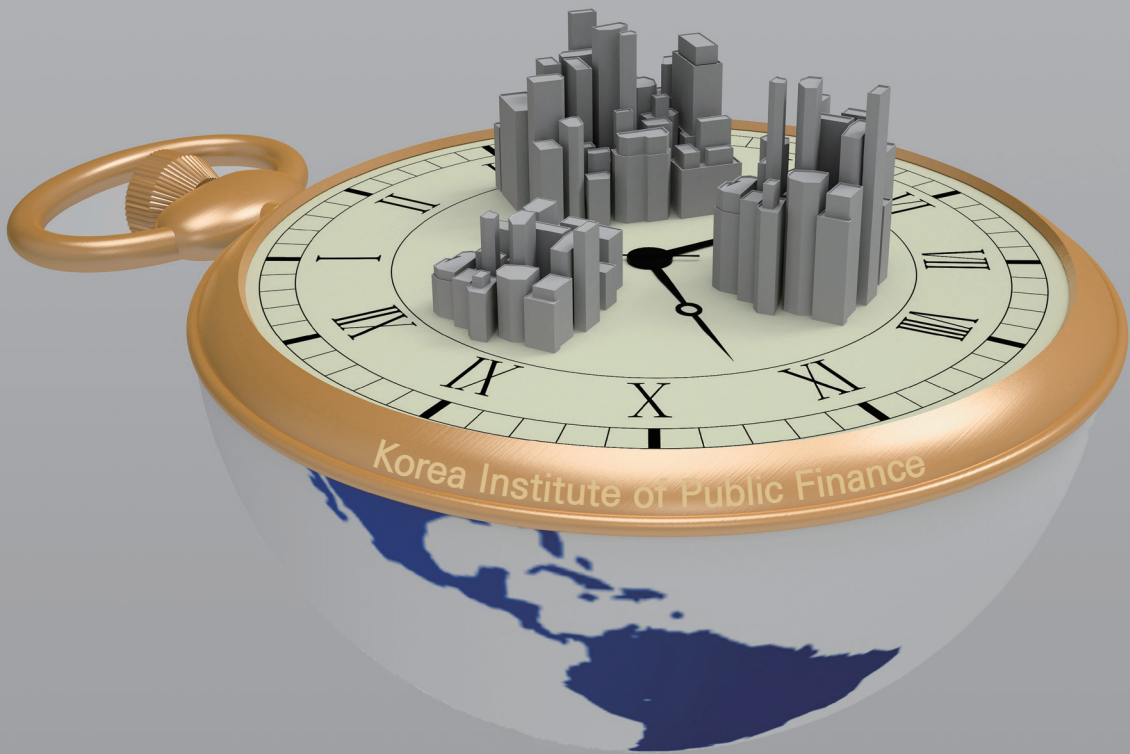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8년 7월 13일 발행